연 40만명 찾는 평화광장 경관가치 높인다

목포시 구조 개선 로드맵 마련
무장애거리 조성, 주차장 확보
2단계로 나눠 총 50억원 투입
이달 두 차례 주민설명회 개최

목포시가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연간 40만명이 찾는 평화광장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평화광장의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평화광장의 경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고삐를 바짝 당긴다.

목포시는 최근 평화광장 주변 관광특구 일원(상동 1157번지, 면적 8만4000㎡)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의 로드맵을 내놨다.

이번 사업은 차도와 인도 등을 재조정해 총 1.2㎞에 폭 30m로 무장애거리를 조성하고, 6개소에 총 374대(대형 10대 포함)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사업비는 50억원(국비 9억, 도비 16억, 시비 25억)이 투입된다.

특히 이 사업은 민선 7기 김종식 시장의 역점사업인 '해변 맛길 30리 조성 사업'과 맞물려 있어 관심이 쏠린다.

시에 따르면 1단계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8억원을 들여 대형 10대를 포함해 총 3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6곳에 조성한다.

이어 2단계로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총 연장 1.2㎞에 달하는 무장애 거리를 조성한다.

시가 구조개선에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현재의 평화광장이 노점상, 불법주차, 보행자와 차량의 혼용으로 인해 교통서비스가 낮고 안전성 확보 문제 등이 줄기차게 제기된 데다 해변과 광장이 지닌 빼어난 경관 가치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평화광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돼 일부 시설 노후화는 물론 심각한 주차난으로 상권이 약화되고 있어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공간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신흥동과 부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두 차례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시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목포시의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중으로 김종식 시장이 직접 나서 주민과의 대화도 가질 예정이다.

이상호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평화광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구조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면서 "내년 말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상케이블카, 해변 맛길 30리 조성 등 목포시 해안 관광자원과 연계해 평화광장의 경관 가치 제고는 물론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성과'

'선 지원 후 처리' 신속 결정
생계지원 전년대비 2배 늘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긴급지원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가 늘었다는 방증으로 그만큼 세상살이가 힘들고 팍팍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목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총 1301건의 위기가구가 발생해 총 8억5400만원이 지원됐다.

세부적으로 생계지원이 769건에 4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지원이 243건에 3억4100만원, 연료지원이 275건에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10월말 현재 1726건의 위기가구가 발생해 총 10억1400만원이 지원됐다. 생계지원이 1295건에 7억6200만원, 의료지원 148건에 2억2200만원, 연료지원 271건에 2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이미 4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월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긴급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생계지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말이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계지원 건수가 급증한 데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지만 목포시가 기초수급 중지 및 신청 탈락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는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세우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에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접수될 시 1일 이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목포시 사회복지과는 동절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2월 말까지를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원춘옥 목포시 희망복지지원팀장은 "동절기 전기·가스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도 생계비와 연료비(월 9만8000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따라 4인기준 생계비 월 119만원(1인 44만원, 6회), 의료비 300만원 이내(2회),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과 주거(4인기준 55만원)·교육비(초등학교 22만1000원, 중학교 35만2000원, 고등학교 43만2000원) 등이 지원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립무용단의 이유있는 변신 '주목'

청주·의정부 시립무용단과 협연…28일 정기공연서 새 장르 선보여

목포시립무용단 제39회 정기공연 '(本) 춤이 머무는 곳'의 한 장면.

목포시립무용단이 제39회 정기공연을 통해 '이유 있는 변신'을 예약했다.

가을의 끝자락인 28일 오후 7시 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목포시립무용단의 화려한 춤사위가 목포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이번 정기공연은 자매결연 도시인 청주시와 의정부시의 시립무용단을 목포로 초청해 3개 시립무용단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 춤의 진수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지역예술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또 목포시립무용단 박수경 예술감독을 비롯해 청주시립무용단 김진미 예술감독, 의정부시립무용단 이미숙 단장 등 3명이 직접 출연해 춤으로 우정을 나누는 이색 무대도 기대되는 볼거리다.

이번 무대가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국악그룹 이상, 민악 솟대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80여명이 총출동하는 역대 보기 드문 대규모 공연이여서다.

시립무용단에 따르면 '(本) 춤이 머무는 곳'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공연에서 전통춤을 기반으로 한 춤·악기·영상의 콜라보로 새로운 장르의 현대적 기법을 바탕으로 구성한 다양한 춤사위가 펼쳐진다.

목포시립무용단이 먼저 창작무 '숨, 짓, 혼, 춤을 담다'를 통해 판굿. 사자춤. 진도북춤으로 이어지는 민속춤으로 신명의 서막을 연다.

이어 의정부 시립무용단은 김병섭류 장고춤과 강선영류 태평무를, 청주시립무용단은 창작무 '영자歌, 하얀 거짓말'을 선보인다.

박수경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은 "춤의 동행을 통해 새로운 춤의 세계를 목포에 소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이번 공연의 의미"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춤을 향한 쉼 없는 열정과 투혼으로 단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포 춤의 저변 확대를 위해 투혼을 발휘한 정기공연인 만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해경, 우수 국민방제대원·자원봉사자 6명에 감사장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5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2019년도 우수 국민방제대원과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6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

국민방제대는 항포구와 인접한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어촌계 중심으로 어민이 자발적으로 해양오염을 제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가꾸기 위해 2010년부터 국민제안으로 조직된 순수 자율봉사단체로 목포해양경찰서에는 12개소에 200여명의 대원이 등록돼 있다.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는 평소에는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때 해안가 방제작업과 현장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94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올해 우수 국민방제대원 및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정규범씨 등 6명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방제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했으며 방제 활동에 적극 지원하는 등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에 기여했다.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김명진씨는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리더로서 우리나라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지키는데 당연한 활동을 했는데 감사장을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우수 국민방제대원과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